



새사연의 연구가 한국 사회의 기준이 될 때까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주도 싱크탱크 새사연

[잇북] 지역화폐 A to Z

발행 | 2014년 12월 04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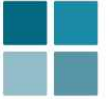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29길 민한빌딩 4층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홈페이지 | <http://saesayon.org>

전자우편 | edu@saesayon.org



여는 글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묵을만한 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주인은 한번 둘러보라고 하며 여행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여행자가 호텔 복도를 지나며 방들을 살펴보는 동안, 호텔 주인은 부리나케 계단을 내려가 호텔을 나가더니 이웃의 정육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여행자가 준 100달러로 정육점 주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 역시 100달러를 들고 부리나케 뛰어나가 이웃의 돼지 농가로 가더니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돼지 농가의 농부 역시 100달러를 들고 부리나케 뛰어나가... 이런 식의 뒤편박질이 몇 번 계속되고 나서 결국 또 다른 마을사람이 100달러를 들고 호텔직원에게 찾아와 그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마침 그 때 호텔 2층에서 방을 둘러보던 여행자가 1층으로 내려와서는, 마음에 드는 방이 없으면서 자신이 냈던 100달러를 돌려달라고 했다. 호텔 직원은 마을을 한바퀴 돌고 온 100달러를 여행자에게 내어주었다. 여행자는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빚을 청산했다.”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무것도 새롭게 생산된 것 없이, 단지 100달러짜리 한 장이 돌았을 뿐이지만 마을의 상황은 달라졌다. ‘역시 돈이란 경제를 순환시키는 피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알고 보니 저 100달러가 위조지폐라면 어떨까? 단지 마을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밀린 외상을 갚았을 뿐이고, 여행자가 위조지폐를 갖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돌기만 한다면 그것이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달러, 혹은 100만 원 같은 ‘그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아예 생각을 전환해서 애초에 마을사람들이 서로의 장부를 까고 빚을 거꾸로 갚아나갔다면 어떨을까? 혹은 외상값 대신 서로에게 필요하면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예를 들어 호텔 주인은 호텔 방을 제공하고,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제공하는 식) 빚을 갚아나갔다면 어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그 돈’만으로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원의 순환을 방해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돈이란 돌아야 하는데,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인데, 어느새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쌓아두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에 투자하는 일



이 발생한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기 쉬워지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대기업은 더욱 큰 기업이 되고, 잘 사는 지역은 더욱 잘 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역화폐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로 인한 부작용 속에서 지역화폐가 보완재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지역화폐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상권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외에도 이미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레츠(LETS), 바터시스템, 타임달러 등의 지역화폐가 만들어져 왔다. 근래에는 인터넷과 전자결제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더 편리하고 확장가능한 방식의 지역화폐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기존 경제체제의 눈에서 보자면, 지역화폐는 실패가 뻔한 꿈이기도 하다. 법정화폐에 비해 편리성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이기적 인간과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면, 시장이 늘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지역화폐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 수 연 (새사연 연구원)



목 차

여는 글	2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5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11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20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32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37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014.02.15

문진수_새사연 이사 | 한국사회적금융원장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작은 섬 마을 코목스 벨리(Comox Valley)에는 '공동체의 길(Community Way)'라는 이름의 독특한 화폐(쿠폰) 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 상인과 비영리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이 지역화폐 모델은 화폐 발행자가 상인이다. 통상적인 할인쿠폰이 구매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화폐는 단순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먼저 이 화폐 발행에 동의하는 지역 상인들이 모여 할인 대상 품목을 정한 후 할인권을 인쇄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전달한다. 비영리단체는 수령한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답례품'으로 이 화폐를 건네준다. 착한 일을 한 대가로 화폐를 받은 주민은 화폐를 발행한 상점이나 가게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봉사료를 줄 때 사용한다.

상인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를 도와주면서도 매상이 늘어선 좋고 비영리단체는 재정구조가 튼실해짐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본래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주민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반대급부를 제공받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역에서 소비)를 통해 본인 및 지역의 살림살이 경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기부 영수증을 화폐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는 이름의 이 영수증 화폐(Earth Rescue Receipt)는 비영리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간이 영수증화폐다. 영수증을 받은 기부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실물화폐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 화폐가 돌고 돌다가 '진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이가 발행처(비영리단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 신고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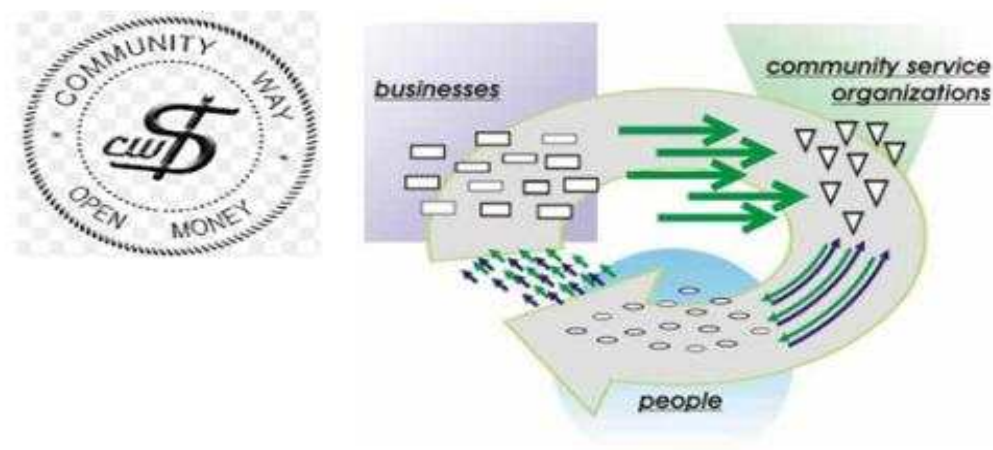


그림 1 '공동체의 길' 로고 및 화폐 운영구조. ©www.communityway.ca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안화폐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며 우리나라도 대략 10년 전부터 대전, 과천, 성남, 인천, 부산, 서울을 비롯해 전국 단위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협동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들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식과 모델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전 우리 조상들이 마을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며 상부상조했던 전통을 되살려 노동에 기초한 상품과 서비스(품)를 교환하는 행위(앗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인천시, 제주도, 강원도 등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에 돈이 돌지 않으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성패 여부를 떠나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안화폐 모델인 렛츠(LETS)를 포함해 지역화폐(Local currency)의 본질은 신뢰 기반의 작은 공동체에서 비자본, 비시장적 교환 방식으로 서로가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나누는 도구라는 점에서 호혜적 거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매개물은 실물화폐와 유사한 모양의 종이일 수도 있고 온라인상의 거래계좌일 수도 있고 언급한 사례처럼 현금 영수증도 가능하다. 어떤 도구를 거래 징표로 사용할 것인지는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의의 범위, 즉 통화 공간(Currency Space)의 크기다. 현재까지 실험된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호혜적 관계망이 작동되는 곳에서는 유효하지만 이 영역을 넘어서게 될 경우, 구매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화폐가 지닌 도구



적 탁월함보다 화폐 유통범위, 즉 '공동체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역화폐의 유효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따로 검증된 기준이 없다. 국가나 지역, 마을공동체가 가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영화폐가 국가라는 영토 안에서 전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발행한 돈을 공용화폐로 쓰기로 한다'는 법적 강제력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화폐 발행의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는 구조라면 이 질서는 해체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화폐로서의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으려면 국가의 '인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화폐를 유통시킨 죄를 물어 강력한 '태클'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1930년 대공황 시기, 독일 탄광마을의 기적이라 불렀던 슈바넨키르헨의 베라(Wara), 세금부족에 허덕이던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뵘글(Woergl)을 회생 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노동증서(Labor Certificates) 등 유럽 국가들에서 통용되었던 감가 화폐(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줄어들도록 설계된 화폐)들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법정화폐 이외의 화폐 유통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유는 한 가지다. 이 '이상한' 돈들이 일정 규모 이상 퍼질 경우 화폐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지럽혀지지 않은 '정상적인' 화폐 유통질서란 무엇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잘 돌아가는 유통질서란 일정한 영역(작은 지역 혹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라는 운반수단을 통해 막힘없이 활발하게 거래(교환)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P) 및 수량(Q)의 총합이 100이라면 이 값에 상응하는 일정 양의 화폐(M)를 일정한 속도(V)로 유통시키면 된다. (경제학자 사이먼 뉴컴이 정식화한 교환방정식으로 $MV=PQ$ 라고 표현됨. 이 방정식을 토대로 현대 화폐이론의 구루라 칭해지는 어빙 피셔의 화폐수량설이 만들어짐) 만일 유통되는 화폐량이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보다 많으면 화폐과잉 현상이 생길 것이고 반대로 적으면 화폐가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하려면(정상적인 화폐 유통질서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화폐의 양과 속도가 '교통체증'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둘 중 어느 것도 담보할 수 없다. 먼저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은 '측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며, 설사 화폐량을 측정했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화폐의 축장기능(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함)으로 인해 언젠든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안에서 통화 유통의 최종 책임자인 국가가 번번이 통화관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금과 화폐의 연결고리(본위제)가 끊어진 이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끊임없이 통화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아르헨티나 사례는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통화관리 실패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국가 또는 그 대리인인 정부가 통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영국·미국·독일 등 금융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많은 나라에서 법정통화 이외에 별도의 화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는 연월에는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현 국가 주도 운영시스템만으로는 금융 대기업, 대형 유통업체 등 거대자본들에 의해 자행되는 부(화폐)의 역외유출 현상 및 그로 인한 지역의 '돈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 궁핍한 이유 가운데 으뜸은 활용할 자원이 없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큰 손들에 의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고, 누군가의 은행계좌와 금고에 잠겨 있고, 돈을 수탁한 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타고 원금을 떼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수의 돈 많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화폐 운영체계로는 이 지독한 돈의 결핍과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돈 가뭄은 심해질 것이고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갈망은 더 높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중앙은행은 지역화폐 제정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별도의 화폐 운영체계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 유통이 결핍된 돈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병용화폐)이며, 별도의 재정 투자 없이도 지역 내에 잠자고 있는(단지 돈이 없어 거래되지 못한) 많은 유휴자원을 깨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기업의 약 20%가 사용하는 공인 보완화폐 비어(WIR),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도시를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한 브라질의 꾸리찌바(Curitiba),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묶어두면 손해를 보는 독일 뮌헨의 감가화폐 킴가우어(Chiemgauer), 12개 지역공동체 은행들과 달러화와 교환 협약을 맺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버크셔(Berkshares),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 브리스톨의 파운드화(Bristol Pound) 등이 대표적인 지역화폐 모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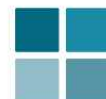
이 화폐들의 공통점은 돈의 사명은 '돌고 도는 것'이므로 (화폐의 기본속성 중 하나인) 교환 매개(Medium of Exchange)에 강조점을 두고 지역공동체 내의 경제적 가치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돈의 축장은 가치의 흐름을 방해하며 돈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살림살이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은 있으되 돈이 부족하니 새로 돈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림 2 ▲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역화폐 버크셔 누리집. © www.berkshare.org

지역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왜냐하면 이 화폐가 매개하는 각각의 서비스와 상품들은 모두 실물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인간의 노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화폐 남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는 오히려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례로 손꼽히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1923년)을 포함해 지난 100년간 발생한 수요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미숙한 관리통화제도 운영 및 그로 인한 과잉 유동성 공급이었다.

화폐의 장구한 역사에 비추어볼 때, 지역화폐를 포함한 대안(Alternative) 통화의 실험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떤 것이나 진배없다. 사회적 자본(신뢰)이 미발달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쉽지 않고 아무리 탁월한 모델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살포되는' 돈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왕이 왕인 이유는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백성과 신하의 눈에 그가 왕으로 보이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화폐는 그것이 돈임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지역화폐 사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가맹점)에는 화폐가 몰리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화폐가 아예 돌지 않는 '적체' 현상에 대한 극복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만능에 가까운 법정화폐와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중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쓰도록 하려면 특별하고 매력적인 효용가치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스템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화폐 설계자의 깊은 안목과 혜안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국가화폐가 경쟁 원리와 금융자본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상거래를 교환하는 매개물이 라면 지역화폐는 풍요로운 지역 자원과 협력 원리에 기초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역화폐를 경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통화 그 자체의 효용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이웃과 이웃들 간의 정 같은 인간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호혜와 돌봄의 공동체란 필경 이러한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화폐 랫츠를 창안한 마이클 린튼(Michael Linton)은 '화폐란 인간의 노력을 배치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만일 현존하는 화폐 시스템이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은 망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이미 신격화된 '돈'과 그 돈을 굴리는 운영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다. 모름지기 '창조' 경제의 실천이란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화폐 현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과 같은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¹⁾

1)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습니다.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2014.09.25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독일 킴카우어, 프랑스 소낭트 등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되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²⁾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발레츠이다. 한발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지역화폐 사례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약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레츠와 같은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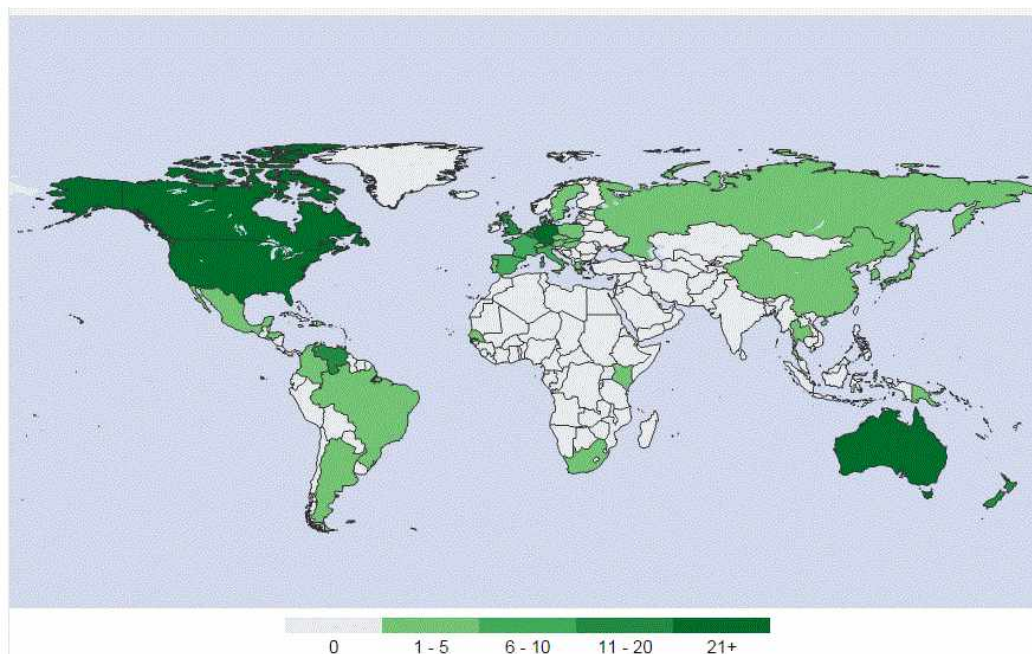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 국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화폐 실험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레츠와는 다른 방식이다. 수원에서는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한 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³⁾, 강원도 역시 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결제, 전자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2)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이 국내에 최초로 레츠를 소개했으며, 1998년 신과학운동을 하는 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에서 미래화폐단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지역화폐운동을 시작했다. 미래화폐의 경우 현재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박용남, 2014, 생태사회구축을 위한 지역화폐운동,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 자료집)

3) 2014년 9월 15일 수원시민화폐 출범식이 열렸으며, 향후 3개월 간의 시범사용이 시작되었다. 운영 주체는 수원시민화폐국이며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현금을 전자화폐형 시민화폐로 바꾼 뒤 지역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화폐의 단위는 '수원'으로, 1수원은 1원에 해당한다. (한겨레, 2014.9.15)



그림 3. 세계 지역화폐 분포 지도



출처 : Complementary Currency Resource Center(www.complementarycurrency.org)

* 각 국가에 분포하는 지역화폐의 개수를 색깔로 표현한 것, 현재 35개국에서 30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화폐의 다양한 이름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⁴⁾ 지역통화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하다. 다양한 지역통화가 가진 특징과 등장하게 된 배경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다. (표 1. 참조)

4) 경우에 따라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화폐 연구자들과 운동가들은 지역화폐가 법정화폐와 대립하지 않으며,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중 일부는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1. 지역화폐의 여러 이름

용어	의미
지역화폐(Local Currency)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물리적 지역뿐 아니라 특정 공통요소를 갖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자원순환 활성화 등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기존의 에너지 의존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사회에서 더 생태적인 사회로의 전환/이행을 추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이자를 붙이지 않고, 스탬프나 인지 등의 방식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해 감가상각되는(노화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계절의 자유화폐이론에 기반한 노화하는 돈(Aging Money)과 같은 개념

지역화폐의 특징

지역화폐는 각 지역과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하여 등장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이론이나 모델이 존재하기 힘들다.⁵⁾ 하지만 지역화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특징, 달리 말하면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공통의 철학을 뽑아낼 수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의 자유화폐(Free Money) 이론은 지역화폐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다.⁶⁾ 게젤은 모든 상품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화폐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를 축적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보았다. (표 2. 참조) 때문에 게젤은 일반 상품과 같이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즉 노화하는 화폐(Aging Money)⁷⁾를 주장했다. 게젤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일반 상품의 평균 감가상각 정도가

5) Kennedy & Lietaer, 2004, Regional wahrungen (Susanne, 2014, Regional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the EU's Striv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hesion에서 재인용)

6) 게젤(1862~1930)은 뵐기에 출신 독일인으로, 1890년 남미 부도 위기가 일어날 때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였다. 당시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케인스(Keynes)가 게젤의 화폐 이론을 높이 평가하여 '마르크스보다 게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시대가 올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7) 부패하는 화폐(Rusting Money), 줄어드는 화폐(Shrinking Moeny), 사라지는 화폐(Disappearing Moeny, Melting Moeny), 스탬프화폐(Stamp Money), 중립화폐(Neutral Moeny), 반자본주의화폐(Anti-capitalist Money) 등으로도 불린다. (Godschalk, 2012, Does Demurrage matter for Complementary Curr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Vol.16)



1년에 약 5%라는 점을 들어 화폐 역시 같은 속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주 화폐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는 식으로 1년이면 5.2%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표 2. 게젤의 자유화폐 이론 소개

“화폐는 교환의 도구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의 기능은 상품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일반적인 상품은 ... 단지 모든 사람들이 화폐를 소유하느냐와 상품을 소유하느냐에 대해 무관심할 때에만 안전하게 교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화폐가 우리의 생산물에 내재하는 모든 결점에 시달릴 때만이 가능하다. 그 결점은 명확하다. ... 우리의 재화는 썩고, 부패하고, 부서지고, 녹이 스다. ... 단지 신문처럼 낡은 것이 되고, 토마토처럼 썩고, 철처럼 녹이 슬고, 에테르처럼 증발하는 화폐만이 토마토, 신문, 철 그리고 에테르의 교환을 위한 도구로서의 테스트를 견뎌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화폐는 구매자나 판매자 양자에 의해 재화보다 선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향유하는 불공정한 특권을 깨부수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특권은 단지 전통적인 화폐 형태가 모든 다른 상품에 대해 가지는 하나의 엄청난 장점, 즉 그것이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8)

게젤의 주장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화폐에 이자가 붙지 않음은 물론이며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⁹⁾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를 저장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이는 화폐의 교환과 유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의 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촉진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이익추구 보다는 필요충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한다.

원래 화폐는 상품과 상품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기존 화폐의 경우 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관계와 협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유발한다. 게젤의 자유화폐는 기존 화폐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때문에 이후 지역화폐 발전 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계승 발전되었고, 지역화폐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8) Gesell, 1958, The Natural Economic Order (한성일, 2013,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지역사회연구 제21권 제4호에서 재인용)

9)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을 유치료(디머리지 demurrage, 화물의 선적이나 인수가 늦어질 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유치료기반화폐 또는 디머리지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화폐의 특징1 :

노화하는 화폐 → 자원의 순환 촉진 → 이익보다 필요에 집중

화폐가 교환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단인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리성은 화폐의 익명성에서 온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이 이전에 누가 쓰던 돈인지,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화폐의 편리성 덕분에 거리에 상관없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

반면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에 비해 편리성이 떨어진다. 법정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과 환전이 가능하지만, 지역화폐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환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곧 화폐와 거래의 익명성이 법정화폐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에 비해 좁은 범위에서 유통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유통하게 되며,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폐가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서도 역할하게 된다. 이것이 지역화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특징2 :

화폐의 익명성 축소 → 거래에 사회적 관계를 부여 → 공동체 강화

이러한 지역화폐의 특징들로 인해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 주체들이 협동할 수 있게 하여 내생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장점을 정리한 아래의 표로 자세한 설명을 대신한다. (표 3. 참조)



표 3. 지역화폐의 장점

1. 지역화폐는 지역개발을 도울 수 있다. 지역의 농부, 중소기업, 서비스 제공자, 비영리 단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2. 지역화폐는 법정화폐보다 더 빠르게 순환한다. 같은 통화량이라고 해도 이자가 없기 때문에 몇 배 더 많이 순환한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지역화폐는 보완화폐로서 지역 고유의 필요성을 만족시킴으로써 경제적 생산을 더욱 촉진한다.
4. 지역화폐는 경제 주체 간의 새로운 협동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협동을 강화시킨다. 이를 통해 혁신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지역화폐는 지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개발 자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내생적 개발을 강화시킨다.
6. 지역화폐는 참여자들의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화폐는 쥐고 있다고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 지역화폐는 의료, 교육,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원과 능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10)

지역화폐의 유형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개의 지역화폐가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3000여개에 달하는 지역화폐 수만큼 그 형태와 방식도 다양하다. 이를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다음의 몇가지 기준에 따라 살펴보려고 한다.

1) 화폐의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고, 발행하는가의 문제이다. 크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레츠와 아워즈(Hours), 타임뱅크(Time Bank)¹¹⁾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생산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교환

10) Kennedy & Lietaer, 2004, RegionaI wahrungen (Istvan Balazs Toth, 2011, The Function of Local Currency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Public Finance Quarterly 2011/1에서 재인용)

11) 타임달러(Time Dollar), 타임머니(Time Money) 등으로도 불린다.



하거나 화폐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의 노동에 의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화폐가 창조되는 것이다. 레츠의 경우, 사용자들이 서로 주고 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가격과 함께 지역화폐의 형태로 표시하여 공유하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교환을 한다. 가격은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절대적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아워즈도 레츠와 비슷하나 유형의 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 시간의 기초노동을 1아워즈라는 화폐로 발행한다. 아워즈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이타카의 경우 1아워즈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타임뱅크도 레츠나 아워즈와 비슷하나 물품거래는 없고 서비스 제공만 있으며, 모든 사람의 시간 당 노동은 동일하게 측정되며, 자원봉사의 촉진과 복지시스템의 변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1시간 동안 봉사를 하면 1타임달러를 얻게 된다.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김가우어(Chiemgauer),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 사례가 있다. 김가우어는 동일한 금액의 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¹²⁾ 브리스톨파운드 역시 동일한 금액의 영국파운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스위스의 비어(Wir)와 프랑스 낭트 지역에서 운영을 준비 중인 소낭트(SoNante)의 경우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공된 신용 한도 내에서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2) 실물 화폐의 존재 여부 및 화폐형태에 따라

지역‘화폐’라고 해서 모두 진짜 돈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화폐의 형태 역시 종이돈,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하다.

우선 레츠의 경우 단위로서 화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¹³⁾ 실제 동전이나 지폐의 형태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단지 회원들의 계좌 안에서만 더해지고, 빼지면서 존재한다. 이를 기록하기 위해 통장을 만든다. 타임뱅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이타카 아워즈, 브리스톨파운드 등은 지폐를 발행한다. 브리스톨파운드의 경우 지폐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도 가능하다. 비어는 지폐는 발행하지 않고 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결제만 가능하다. 소낭트도 지폐는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만 가능하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3) 환전, 대출, 적자 한도 여부 등에 따라

12)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에 있어서 소비자와 가맹점에 적용되는 규칙이 조금 다르다.

13) 대전 한발레츠의 경우 화폐 단위가 ‘두루’이다.



다른 통화, 주로 법정화폐와의 환전에 관해서도 각 사례마다 다르다. 환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의 경우 환전을 허용하지 않고 가맹점에게만 환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화폐에서 지역화폐로의 환전과 반대로의 환전에 다른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타카 아워와 같이 시간에 기반하여 발행된 화폐의 경우 아예 법정화폐로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브리스톨파운드의 경우 소비자 사용자들은 법정화폐로 환전을 할 수 없지만, 가맹점들은 가능하다.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에 비해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운영방식이다. 독일의 킴가우어는 소비자가 처음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할 때는 동일한 가치로 환전하지만, 나중에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는 5%를 할인하여 환전한다. 즉 100킴가우어를 95유로로 바꿔준다.

환전을 허용할 경우 지역화폐 사용 빈도가 떨어질 수 있고, 환전을 불허할 경우 초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 지역의 상황과 화폐 도입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전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지역화폐와 함께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의 비어가 대표적인데, 원래부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로 대출하고, 지역화폐로 갚는다. 프랑스의 파리, 릴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솔(Sol)의 경우도 지역화폐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레츠와 타임뱅크의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여 화폐를 얻는 방식이기에 대출이 아닌 적자한도의 개념이 존재한다. 즉, 계속해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화폐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레츠의 경우 적자 한도가 정해져있다. 공동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무임승차자를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타임뱅크의 경우 봉사활동과 복지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자 한도를 두지 않는다.

4) 지향점에 따라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독일 킴가우어, 프랑스 소낭트 등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되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화폐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략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표 4. 주요 지역화폐 비교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비어	김가우어	브리스톨 파운드	소낭트
가치평가 기준	시간	시간	시간	신용발행 법정화폐 (스위스프랑)	법정화폐 (유로화)	법정화폐 (영국파운드)	신용발행 법정화폐 (유로화)
실물화폐 존재여부	X	지폐 발행	X	X	지폐 발행	지폐 발행	X
화폐 형태	계좌 거래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신용카드
법정화폐로환전	X	X	X	가능	가능	가맹점만 가능	X
기타	적자 한도 존재		적자 한도 없음	대출 가능			
지향점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더 많은 지역화폐를 기대하며

영국 지역화폐에 대해 연구한 피터 노스(Peter North)는 지역화폐의 목적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원하는 목적에 맞는 형태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스는 여러 지역화폐를 비교하여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음의 네 가지를 지역화폐 고안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¹⁴⁾

- ① 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 ③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 ④ 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지역화폐의 다양한 사례들이 더 많이 연구되어, 각 지역에 맞는 더 다양한 지역화폐가 탄생하면서도 지역화폐가 성공하는 공통의 요인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4) North, 2000,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roblems and how they might be overcome.,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2014.10.07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CCI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내에서 6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기존의 수익 중심 화폐와 경제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상품을 교환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며, 유로나 파운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연결될 수 있어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¹⁵⁾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¹⁶⁾

경제위기 때 관심을 모았던 지역화폐

지역화폐의 시작으로는 1832년 영국 런던에서 도입된 ‘노동증서’가 중요하게 이야기 된다. 협동조합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만든 화폐이다.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가치를 평균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그만큼의 노동증서를 받고, 다른 참가자가 제공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제수단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지역화폐 사례들이 존재했는데, 주로 대공황, 세계대전 등 화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침체 시기에 많이 등장하여 효력을 발휘했다.¹⁷⁾ 이러한 사례

15) 이수연, 2014,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6) Complementary Currency Resource Center(www.complementarycurrency.org)

17) 자세한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아베 요시히로 외, 2003, 아르케) 참조



들은 1990년대 후반 레츠(LETS)나 타임달러(Time Dollar)와 같이 시간에 기반한 현대 지역화폐 모델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다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으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력이 다른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통화정책 부재로 인한 어려움 또한 겪고 있다. 때문에 지역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최근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

유럽연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유럽의 기업, 연구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한 'SPREAD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Sustainable Lifestyles) 205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화폐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제시하였다.¹⁸⁾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삶의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이기에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2050년까지 유럽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 정치와 정부의 역할, △ 경제와 통화 시스템, △ 사회혁신, △ 개인들의 태도 변화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한 4가지 요인으로 꼽혔다.

그 중에서도 경제와 통화 시스템의 경우, △ 현재의 부채 기반 경제에서 공동체 기반 경제로 전환, △ 지역화폐를 촉진하고 은행시스템의 탈중심화로 통화 시스템 재구축, △ 투자와 보조금 및 세제의 개편, △ 생태경제학이 주류가 되도록 교육 체계 변화, △ 생산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생산하도록 기업의 생산 과정 변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역화폐와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 개발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 2050까지는 지역화폐와 포괄적 경제 모델이 유럽 전역에서 합법화 되는 것을 시기별 목표로 삼았다.¹⁹⁾

이러한 장기적 정책 전망과 함께 CCIA(Community Currency In Action, 지역화폐 실험)라는 지역화폐 설계와 시행을 위한 관련 조직들의 연합체도 만들어졌다. CCIA 역시 유럽연합의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지원

18) 유럽연합은 이 프로젝트에 약 142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19) 영어 원문에서는 alternative currency, complementary currency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의 의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역화폐로 통일하여 해석하였다. 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2012, European Policy Brief, (www.sustainable-lifestyles.eu)



을 받고 있다. 현재 코인(Qoin), 스트로(STRO, Social Trade Organization), 신경경제 재단(NEF, New Economic Fund)의 지역통화 전문기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낭트, 영국 런던 램베스의 지방정부, 벨기에와 영국 웨일스의 관련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CCI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내에서 6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기존의 수익 중심 화폐와 경제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상품을 교환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며, 유로나 파운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연결될 수 있어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²⁰⁾

유럽연합, CCIA를 통해 6개 지역화폐 시범사업 진행 중

CCIA가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화폐 시범사업은 △ 프랑스 낭트의 소낭트(SoNantes), △ 네덜란드의 트레이드코인(TradeQoin), △ 영국 사우스웨일스tm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Spice Time Credits),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마키(Makkie), △ 벨기에 림부르흐의 E-포르도모네이(E-Portmonnee), △ 영국 런던의 브릭스톤 파운드(Brixton pound)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폐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화폐도 있다. CCIA는 6개 시범사업 모두 2015년에는 실제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1. CCIA의 유럽 내 지역화폐 시범사업

지역화폐	지역	목적	방식
소낭트	프랑스 낭트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상호신용거래, 신용카드나 온라인을 통한 지불결제
트레이드코인	네덜란드	중소기업 간 거래 지원	상호신용거래, 기업간 거래만 가능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	영국 사우스웨일스	주민 참여 기반 공공서비스와 자원봉사 확대	시간 거래 품앗이
마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마카사스퀘어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품앗이 촉진	시간 거래 품앗이
E-포르도모네이	벨기에 림부르흐	친환경적 생활 방식 확산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브릭스톤 파운드	영국 런던 램버스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법정화폐와 교환, 종이화폐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지불결제

20) communitycurrenciesinaction.eu



6개 지역화폐 시범사업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1) 소낭트(SoNantes)²¹⁾



소낭트는 프랑스 낭트의 지역화폐로, 2015년 1월 운영 예정이며 아직 준비 단계이다. 낭트는 프랑스 남서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다. 거주인구는 30만 명이다. 당시 낭트시 시장이었으며 현재는 프랑스 총리인 장 마르크 애로(Jeon Marc Ayrault)의 주도하에 2008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했다. 2012년 초 ‘낭트의 화폐(A currency in Nante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공식화되었다. 지역 대학의 전문가와 학생, 노동자, 사업자, 시민 대표들이 모여 수많은 워크숍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를 지속했다. 2013년 CCIA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소낭트는 유로화의 보완 화폐로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줄이고, 지역의 소상공인²²⁾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가맹점과 소비자는 시립 낭트은행(Creidt Municipal de Nantes)²³⁾에서 계좌를 만들고 유로화를 같은 금액의 소낭트로 교환할 수 있다. 즉, 1소낭트는 1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교환한 소낭트로 직접 지불결제를 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가맹점간 또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에 화폐를 거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의 상호신용²⁴⁾도 가능하다.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결제가 가능하다. 종이화폐는 사용하지 않는다.

21) www.sonantes.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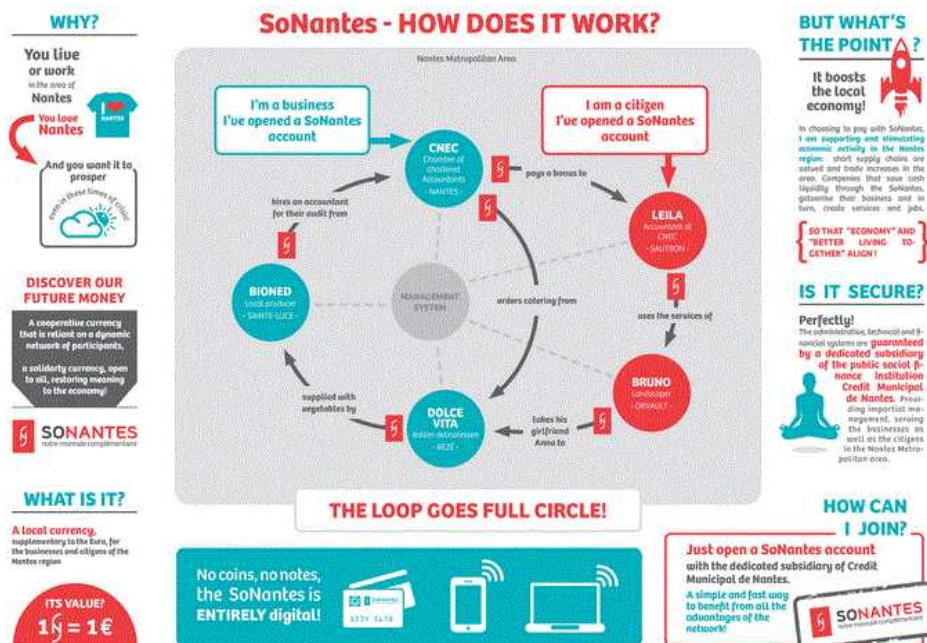
22) 낭트에는 2만 6천여 개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존재한다.

23) 낭트 시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서민 용자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한다.

24) 상호신용 방식에 대해서는 뒷쪽에 나오는 트레이드코인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그림 1. 소낭트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물(www.sonantes.fr)



2) 트레이드코인(TradeQoin)²⁵⁾



트레이드코인은 네덜란드 전역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2014년 3월부터 운영되었다. 중소기업 간 거래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간 상호신용 통화이다.

참여 기업들은 트레이드코인 웹사이트에 가입 신청을 하고 계좌를 부여받는다. 계좌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며, 다른 참여 기업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트레이드코인을 받으면 그만큼이 계좌에 입금된다. 이후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안에서 다른 참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1트레이드코인은 1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3번의 거래를 달성하면 트레이드코인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정식 회원이 되면 매달 회비 2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이 유로화로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트레이드코인을 통해 거래하면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기업들의

25) tradeqoin.com



가입을 유도하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개별 소비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풀타임 근로자가 250명 이하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일종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교류하도록 하며, 다른 지역의 기업과도 거래가 가능하다. 트레이드코인 네덜란드(TradeQoin Netherlands)라는 전국적 협동조합이 존재하여 거래할 대상을 찾지 못한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이화폐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전자결제 기록만으로 운영된다.

그림 2. 트레이드코인 홍보물 -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트레이드코인을 이용하라는 내용 (tradeqoin.com)





3)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Spice Time Credits)²⁶⁾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은 영국의 사우스웨일스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10년전부터 운영되던 것을 CCIA의 지원을 받아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스파이스는 타임 크레딧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역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나 자원봉사를 늘리고,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이며, 빈곤을 줄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타임 달러나 타임 बैं킹과 같은 형태이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커뮤니티 등에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시하면 시민들은 이에 참여하여 '타임 인(Time In)'을 할 수 있다. 즉,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타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타임 크레딧은 공공기관이 지역의 가맹점에서 '타임 아웃(Time Out)'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나 극장 이용이 가능하다. 꼭 공공기관이나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애완견 돌봐 주기 등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다. 또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기부할 수도 있다. 1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의 가치가 1타임 크레딧이다.

온라인 타임뱅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서 결제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종이화폐로 발행하여 결제할 수 있다.

그림 3.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의 종이화폐 1타임 크레딧
(www.justaddspice.org)



26) www.justaddspice.org



4) 마키(Makkie)²⁷⁾

makkie

마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부에 위치한 마카사스퀘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마카사스퀘어는 암스테르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빈곤율을 가진 곳이다. 오래 전부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역화폐 도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마을에 일거리나 사람은 있지만 돈이 없다는 문제로 이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마키는 △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동네 만들기, △ 사회적 소외 해소, △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 △ 청년층 지원, △ 지역기업 강화 및 주민과 지역기업 간 연결을 목표로 내세웠다.

마키를 이용하고 싶으면 우선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다. 이후 마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사를 돕거나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일한 시간에 따라 마키가 지급된다. 1시간 일한 가치가 1마키에 해당한다. 지급된 마키를 통해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영화관이나 수영장의 입장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마키는 지역봉사활동과 주민 간의 품앗이를 돕는 매개체이다. 마키는 종이화폐로 발행된다.

그림 4. 마키의 종이화폐 1마키와 1/2마키 (www.makkie.cc)



27) www.makkie.cc



그림 5. 마키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 – 몇일 동안 10살 아들의 하교길에 동행해 줄 사람을 찾고 있으며 그 보상으로 3마키를 제안하고 있는 내용 (www.makkie.cc)

Ophalen van zoon [Lees minder](#)

Mijn zoon gaat naar Speciaal Onderwijs in Noord. Ik zoek iemand die hem op een paar vaste dagen kan ophalen. De school is minder dan 5 minuten fietsen vanaf de pont Distelweg en NDSM werf. Vanaf de Tasmanstraat wonen wij minder dan 10 minuten fietsen verwijderd van de pont. Mijn zoon is 10 jaar oud en kan heel goed fietsen.

Deze hulpvraag is beantwoord!

Wanneer:	1 okt, 2014
Makkies:	3
Categorie:	Vervoer
Trefwoorden:	kind, school, ophalen, fiets
Openbaarheid:	publiek

5) E-포르또모네이(E-Portmonnee)²⁸⁾

[limburg.net](http://www.limburg.net)

E-PORTEMONNEE

E-포르또모네이²⁹⁾는 벨기에 림부르흐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2005년부터 운영되었다. 림부르흐는 행정구역상 주(州)로 인구는 85만 명이며, 그 안에 40여 개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다.

E-포르또모네이를 운영하고 있는 림부르흐닷넷(www.limburg.net)은 림부르흐 지역의 폐기물 처리 기업인데,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이다. E-포르또모네이 역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E-포르또모네이도 앞서 살펴본 마키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마키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이 지역과 이웃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면, E-포르또모네이는 친환경적 활동으로 특정된다. 우선 주정부나 자치구 정부에 가서 아이디 카드를 등록하고 계좌를 만든다. 그 후 지역 중고매장에 물건을 기부하거나 집안에서 쓰는 에너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는 대중교통이나 체육문화시설 이용, 그 외 친환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의 입출은 자신의 전자계좌에 기록이 된다.

28) www.e-portemonnee.be

29) 네덜란드어로 포르또모네이는 지갑이라는 뜻이다. E-포르또모네이는 전자지갑을 의미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종이화폐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은 없고 오로지 전자계좌의 기록으로만 거래를 한다.

현재 림부르흐에 있는 10개 자치구가 E-포르또모네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사용인구 비율은 최소 1%에서 최대 16%에 이른다. 아이디 카드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하기 쉽다.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6. E-포르또모네이 웹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 왼쪽부터 천연퇴비 제조를 돕는 잔디깎기 구매시 1000포인트, 천연퇴비 제조시 250포인트, 주택에 재생가능 원자재 구매시 5포인트, 재생가능 기저귀 구매 시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 (www.e-portemonnee.be)

VERDIENACTIES: WAARMEE KAN U ZOAL PUNTEN VERDIENEN?
DEZE VERDIENACTIES ZIJN NIET BESCHIKBAAR IN ALLE GEMEENTES.

BEKIJK ALLE VERDIENACTIES

 Tuin AANKOOP VAN EEN MULCHMAAIER Het gemeentebestuur wenst het ter plaatse (her)gebruiken van groenafval te stimuleren. 1000 PUNTEN	 Tuin COMPOSTMEESTERS DIE INFO GEVEN TIJDENS DEMODAGEN Indien je als compostmeester info geeft aan bezoekers tijdens een demodag, word je hiervoor beloond met 250 punten per demodag. 250 PUNTEN	 Huis AANKOOP ISOLATIEMATERIAAL UIT HERNIEUWBARE GRONDSTOFFEN Hernieuwbare grondstoffen zijn grondstoffen die op aarde gekweekt kunnen worden. Mits goed beheer zijn deze grondstoffen onuitputbaar. Volgende isolatiematerialen komen in aanmerking: 5 PUNTEN	 Huis AANKOOP VAN HERBRUIKBARE LUIERS De wasbare luier bestaat in allerlei vormen, kleuren en maten. 5 000 PUNTEN
---	--	--	--

6) 브릭스톤 파운드(Brixton Pound)³⁰⁾



브릭스톤 파운드는 영국 런던의 자치구 중 하나인 램버스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2014년 CCIA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 지원을 받고 있다.

30) brixtonpound.org



브릭스톤 파운드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파운드와 같은 금액의 브릭스톤 파운드를 교환하여 사용한다. 즉, 1브릭스톤 파운드는 1파운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계좌에 들어온 브릭스톤 파운드는 종이화폐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폰 문자결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종이화폐의 경우 1, 5, 10, 20브릭스톤 파운드로 4가지 종류가 있다. 휴대폰 문자 결제(Pay-by-text)란 문자로 자신의 계좌에 지정된 번호와 구매처, 구매금액을 적어 브릭스톤 파운드 은행에 보내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2014년 현재 270여 개의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자수는 1000여 명에 이른다. 브릭스톤 파운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 따라 10~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램버스 지자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릭스톤 파운드로 월급을 지급하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램버스 지자체의 직원들은 월급 중 일부를 선택하여 브릭스톤 파운드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종이화폐로 발행되지는 않고 전자계좌를 통한 이체만 가능하다.

그림 8. 브릭스톤 파운드의 휴대폰 문자 결제 장면 - 이용자 8284가 sensala에서 9.50브릭스톤 파운드를, whitehorse에서 1.00브릭스톤 파운드를 결제 요청했고, 이것이 처리된 화면 (brixtonpoun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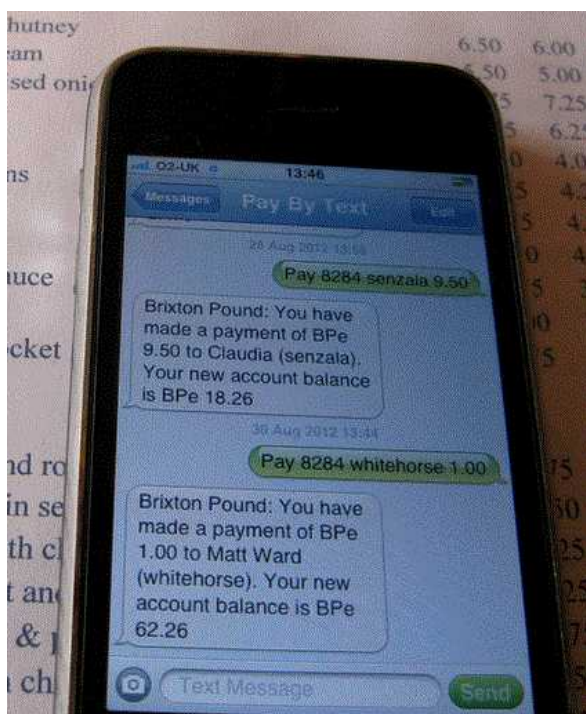




그림 7. 브릭스톤 파운드의 종이화폐 (brixtonpound.org)



이상 CCIA에서 추진 중인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지역마다 상황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또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CCIA와 여섯 가지 지역화폐들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선례들이 많이 전파되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역화폐 실험이 시도되고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2014.11.14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화폐는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 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화폐가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화폐가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독일 김카우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등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 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³¹⁾

특히 최근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³²⁾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을까?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폐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화폐와 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

31) 이수연, 2014,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32) 연합뉴스, 2014.4.9, 강원도 지역화폐 유통 2016년 시범운영 추진



줄만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여기서는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논하되, 실증적 사례 분석이 아니라 이론적 추론과 설명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발전은 무엇인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경제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취업자수, 인구수, 지방채 발행량과 발행금리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중에서도 GRDP나 GRNI와 고용률이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지역경제 발전의 방식은 크게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으로 구분된다.³³⁾ 외생적 발전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과 인구가 늘어나며, 그것이 다시 지역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확대를 가져와 연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우리나라의 제철,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 핵심 기간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항, 구미, 울산, 창원 등이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외생적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환경파괴나 소득의 역외유출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로 대기업을 유치하여 성장하였더라도 시장 조건이 변하면 대기업을 이전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지역이 적지 않고, 또 고용이 창출된 경우도 고용 창출 비용이 과다하며, 기업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 한층의 외부지원이나 공공 인프라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재정한계로 이를 지속하기 어렵고, 더 문제는 지역의 자생적인 기업가 창출을 방해하거나 대체해버렸다는 것이다.³⁴⁾

특히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는 국내 주요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일반적으로 GRDP와 GRNI의 차이로 측정한다. 지역내 생산과 지역내 분배의 괴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외생적 발전이 이루어진 대표적 도시인 울산과 충남의 경우 각각 2010년 기준 GRDP는 약 52조 4200억 원과 64조 1200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해 GRNI는 각각 약 40조 4100억 원과 40조 원이다.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유출은 각각 약 12조 원과 24조 원에 이른다. 두 지

33) 박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제47집. 이후 나오는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에 대한 설명의 많은 부분을 이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34) OECD, 1992, Businesses and Job in the Rural World. 박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제47집에서 재인용.



역 외에도 같은해에 인천이 약 1조 4000억 원, 강원도가 약 3조 6000억 원, 충북이 약 6조 원, 전북이 약 4조 8000억 원, 전남이 약 18조 4000억 원, 경북이 약 13조 4000억 원, 경남이 약 1조 5000억 원, 제주도가 약 8000억 원의 역외유출을 기록했다.

표 1. 권역별 소득의 역외유출입 규모(2010, 단위 : 십억원)

* 출처 : 박경, 2011, 우리나라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제주
84,3546.4	-29,157.1	-17,281.0	-7,391.9	-22,334.0	-4,535.0

내생적 발전, 지역의 자원 활용과 순환

외생적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내생적 발전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내부에서 찾는다. 또한 단순히 자원 출처의 내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치와 지역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이라는 피상적 양적 목표보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경제발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내생적 발전에 의하면 외부 기업 유치보다는 지역내 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복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내 기업끼리 상호거래를 하면 일과 돈이 돌아서, 고용도 늘고 세수입도 늘어나며, 늘어난 세수입으로 지역내 재투자자를 하면 지역경제 자립과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내생적 발전은 지역내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경제순환을 만들고 지역내 재투자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화폐는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³⁵⁾,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 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화폐가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화폐가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 경제주체, 지역 내 교환,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

35) Fare, 2013, Sustainable territorial development and monetary subsidiarity,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n The Hague., Fare, 2012, Community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as Too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eblen Institute for Economic Reforms., Toth, 2011, The Function of Local Currencies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Public Finance Quarterly.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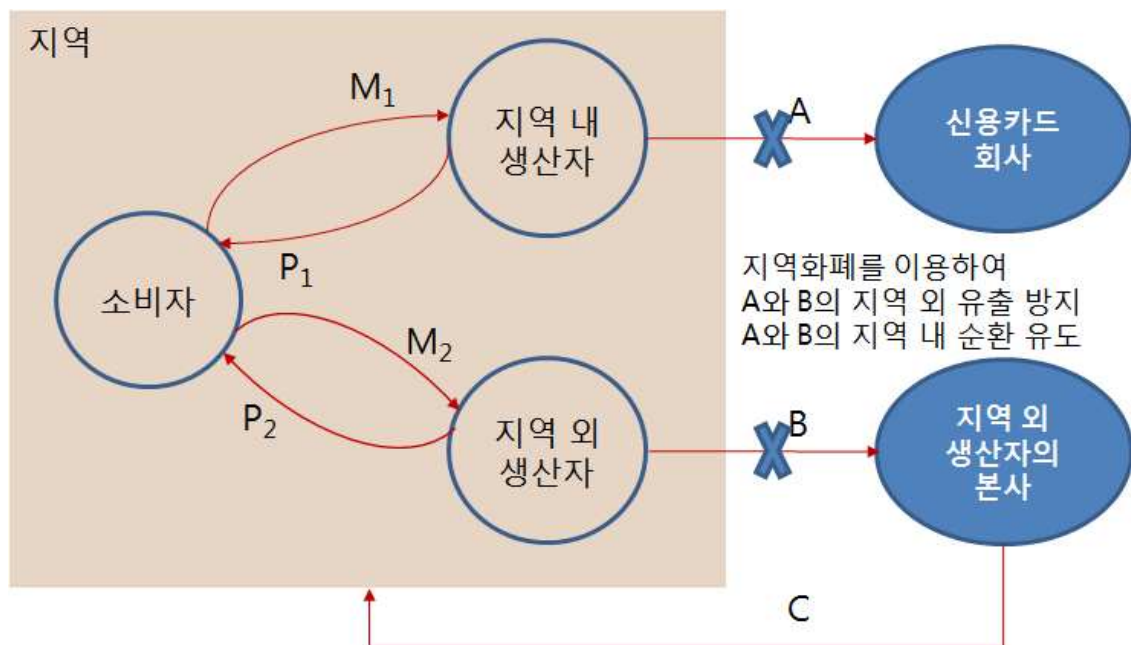
지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지역화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화폐의 큰 특징은 두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에 사회적 관계를 붙여넣는다는 점이다.³⁶⁾ 그리고 특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신뢰 형성

그림 1.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과정

(M1, M2 =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돈, P1, P2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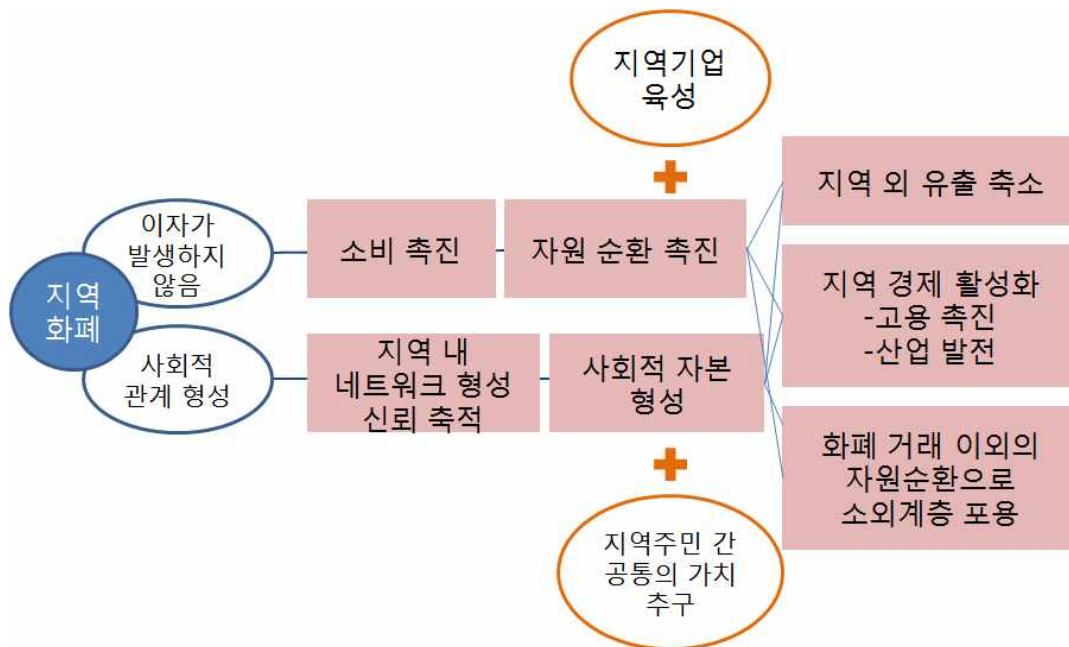
일단 지역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나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와 유통, 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 돈이 지역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지역 안에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체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역 밖으로 나가던 돈들이 지역 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6) 이수연, 2014,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지역화폐는 소비되지 못하고 장롱 속 어딘가에 쌓여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역화폐와 함께 지역 내 기업의 참여와 외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기업 창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³⁷⁾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에 기반한 신뢰가 형성된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비를 지향한다.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친환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산물을 소비한다. 외지 유통업체가 아니라 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등의 지역화폐만이 가지는 의미가 잘 공유될수록 이러한 효과는 높아진다. 지역화폐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바우처나 기본소득,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등과 연동하여 운영한다면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해당 지역 주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증대할 수 있고, 지역 내 소외된 계층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림 2.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럴 수 있도록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7) 한성일, 2013,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지역사회연구 제 21권 제 4호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영국의 혁신도시 브리스톨의 화폐실험... 전자지역화폐 '브리스톨파운드'

2014.07.07

문진수_새사연 이사 | 한국사회적금융원장



그림 1. ▲ CCIA (Community Currencies In Action) 유럽 지역화폐 추진그룹 간 네트워크인 CCIA 누리집 © CCIA 누리집 갈무리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개의 지역화폐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화폐(Community Currencies)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ERDF)이 출연한 돈은 총 400만 유로. 이 자금을 지원 받아 영국·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 많은 유럽국가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2년 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 (£B)는 그들 중 가장 넓은 화폐공간을 가진 지역화폐로,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스타' 화폐다.

도심인구 43만 명. 외곽지역까지 합할 경우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브리스톨 지역에서 새로운 화폐실험이 시작된 배경에는 몇몇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도전정신이 숨겨져 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지에는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풀뿌리 지역화폐가 다수 존재한다. 현재까지 실험된 바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호혜적 관계망이 살아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되지만 이 영역을 넘어서게 될 경우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브리스톨의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화폐는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경험적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시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기자는 브리스톨파운드 조사를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브리스톨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종이돈을 매개수단으로 바라보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자화폐를 도입한다면 화폐공간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대목인 화폐 신뢰 문제(화폐를 쓸 곳이 없어서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발행한 액수만큼의 돈(법정화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면 해결되지 않을까.

지역화폐의 구동 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재들이 살짝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브리스톨의 지역 활동가들은 수백 번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혁신도시 브리스톨의 지역화폐 실험



그림 2. ▲ 브리스톨시 신용협동조합 사무실 © 문진수



이들은 오래 전부터 지역화폐를 연구해 온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बैं킹 시스템을 개발한 전문 기관을 탐색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비용을 지원해 줄 자선단체를 찾아다니고, 지역화폐를 세금으로 받아줄 것을 시 정부에 청원하고, 지역신협(Bristol Credit-Union) 이사장을 만나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해 줄 수 있는가를 타진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마침내 네덜란드의 온라인 बैं킹 시스템 개발회사로부터 시스템 개발을 돕겠다는 답변을 받고, 한 자선기관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는 데 성공했다. 또 새로 당선된 시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고, 신협 이사들 간의 찬반토론 끝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역화폐 프로젝트를 이끌던 핵심그룹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공동체이익회사(CIC)를 설립, 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약 3년간에 걸친 운영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브리스톨시에 지역화폐가 모습을 나타낸 것이 2012년 9월이다. 브리스톨파운드(CIC)에서 일하다가 최근 실험으로 자리를 옮긴 마크 버튼(Mark Burton) 이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화폐 시스템이 개방되긴 했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청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세금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맹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그림 3. ▲ 브리스톨시청 정문 알림판 © 문진수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지역화폐의 도입 및 정착 과정에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준 것이다. 현재 브리스톨시는 브리스톨파운드(CIC)에 연간 5만 파운드의 지원금과 무료로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 지방세라 할 수 있는 주민세를 지역화폐로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나아가 공공구매 대금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시장은 자신의 급여 전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받으며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상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구현해가고 있다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브리스톨파운드는 지폐, 온라인 결제,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문자서비스(SMS)의 세 가지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종이화폐는 모두 네 종류가 발행, 유통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를 사용기한으로 정해놓고 있다(이 시점에 화폐 재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자화폐는 신협과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결제 주문 및 승인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화폐는 브리스톨파운드(CIC)에서, 전자화폐는 신협에서 각각 관리한다.

지금까지 발행된 지폐는 총 11만5000파운드. 원화로 환산하면 2억 원 남짓의 적은 돈이다. 지폐 발행액이 적은 이유는 본위제 방식(동일 금액만큼 예치)을 적용하고 있어서 자금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주거래 은행인 신협에 브리스톨파운드 전용계좌를 개설한 사람 수는 1500명 남짓이고 확보된 가맹점 숫자는 370개 수준이다. 혹자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화폐가 태어난 지 만 두 살이 안 된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골목상인 보호하는 돈, 지역화폐"

현재 브리스톨파운드의 주 수입원은 화폐 거래 시에 징구하는 수수료 수입이다. 수입 구조만 놓고 보자면, 일정한 수의 가맹점이 만들어지고 적정 수준의 거래가 이뤄져야만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브리스톨파운드(CIC) 씨아란 먼디(Ciaran Mundy) 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 사업은 가맹점 확보, 종이화폐 관리,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 마케팅 및 홍보작업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수익구조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해 각종 모임과 행사장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한 것이 허언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가맹점 확보 이외에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폐 교환 시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법정화폐 100파운드를 받고 지역화폐 110파운드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맹점이 늘어도 화폐 소비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과 소비자층 두 대상 모두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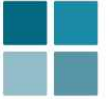
개인이 사용한 지역화폐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토록 함으로써 화폐와 지역사회 투자를 연동시키는 모델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4. ▲ LOCAL & TESCO 대형 유통점 TESCO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 머그잔(브리스톨 시내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발견했다) © 문진수

지역화폐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브리스톨파운드 가맹점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스톡크로프트(Stokescroft) 거리에서 친환경 유기농식품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 사업가는 "아직까지 거래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영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의 지역상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 거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을 외지에서 조달하고 판매이익금 대부분을 외지로 방출함으로



써 지역 순환경제 달성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체 중 으뜸이 대형마트(SSM)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시내나 시 외곽 어디에서나 테스코 마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이 이들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참고로, 테스코는 한국에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지역화폐 취급 가맹점이 적은 것은 문제



그림 5. ▲ 브리스톨파운드 종이화폐 :
현재 4종류가 발행, 유통되고 있다 © 문진수

브리스틀시 인근에서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들을 고용, 유기농 야채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로컬 푸드를 실현하고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도시농업 사회적기업(CIC)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글로버(Steve Glover)대표. 그는 "사회적기업가로서 지역화폐 사업이 가진 취지와 뜻에 공감해 유통 도매상과 직거래하는 레스토랑으로부터 브리스톨파운드를 받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소비할 곳(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신협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들의 치열한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역화폐는 안정성과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화폐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가맹점)가 부족할 경우 화폐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화폐 공간 안에 사람들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공동체 기반의 소규모 지역화폐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화폐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거의 만능에 가까운 법정화폐와 달리 사용처가 일정하게 제한된 지역화폐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토록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한 기성 화폐 대신 낯선 지역화폐를 쓰도록 한다는 것이 어디 생각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출범한 지 채 2년도 안 된 신생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를 가맹점과 화폐이용객 숫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죽은 노동 되살리는 지역화폐

브리스톨파운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돈이 아니다. 지역화폐는 법으로 정한 공통화폐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경쟁 원리와 희소성으로 인해 지독한 결핍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돈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노동을 되살린다. 또한 가격 뒤에 숨겨진 이자를 제거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 법정화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보완화폐(Complimentary Currency)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정화폐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모색해가는 동반자라는 말이다.

과거 지역화폐의 움직임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던 중앙은행(BOE)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브리스톨시 탐방 전에 들렸던, 대안화폐 전문 연구기관인 영국 신경경제재단(nef)의 던컨 맥컨(Dunncan McCann) 연구원은 "통화당국도 이제 지역화폐가 지닌 긍정적 요소와 기능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통화가 활성화돼도 전체 통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기만 한다면 국가화폐와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화폐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화당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인 '통화질서 교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지역화폐의 존재를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분명하다.

최근 프랑스도 지역화폐를 통해 공공서비스 비용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법률을 통



과시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영국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화폐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각국의 지역통화 실험을 격려, 지원하는 일이 우연한 현상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도시의 경계를 넘는 넓은 지역을 화폐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윤리적 금융기관으로 평가받는 신탁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시스템에 결합돼 있다는 점,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 세금 납부를 포함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지역화폐 흐름과 구별된다.

과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매우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화폐의 운명은 필경 운영시스템의 성능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사랑하는 브리스톨 시민들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화폐의 역사는 장구하다. 화폐는 은행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인류가 교환을 경제 운영의 중심원리로 가져가는 한,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한편,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돈의 위력은 이미 신격화됐으며, 실물 경제와 유리된 화폐의 남발은 반복된 통화위기를 낳고 있다. 그리고 유통화폐의 약 95%가 자원순환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남용됨으로써 각국의 통화와 국제 통화질서는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 '화폐원정대'의 임무

지역통화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치 전달체계의 촉매로서 화폐가 지닌 본연의 기능을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구하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실험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대공황(1930년) 시기, 화폐가뭄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안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인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지역통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브리스톨시 곳곳에서 관찰되는 문구(We accept Bristol pounds, 브리스톨 파운드 받습니다)를 바라보면서, 결국 혁신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무모한 꿈으로부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일에 온전히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시골마을에 살던 한 평범한 소년이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절대반지를 용암 속에 넣음으로써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한다는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줄거리처럼, 브리스톨의 화폐원정대가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³⁸⁾



그림 6. ▲ 상점 입구에 붙은 안내문 브리스톨 파운드를 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인식코드 역할을 한다. © 문진수

38)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진보적 정책 자산을 늘려나가는
새사연의 [잇;북]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연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